

일제강점기 조선 특산물의 이동 경로를 그려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조선의 특산 완역 지역별 생산 규모와 활용처 등 정보 총망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박선영, 설주희 연구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물의 현황이 담긴 자료를 완역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경영연구소(소장 변주승)는 박선영, 설주희 연구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물의 현황이 담긴 자료를 완역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박선영, 설주희 연구원이 번역한 자료는 생산지와 생산량, 이동경로를 총망라하여 식민지 조선의 특산물 이동 현황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번역의 저본이 된 朝鮮の特産どこに何が あるか(조선의 특산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이하 '조선의 특산')는 조선총독부 철도국(鐵道局)에서 근무한 사토 시카에다(佐藤栄枝)가 1933년에 발간한 조선 안내서이다.

철도국에서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일본에 조선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특산물을 소재로 이 책을 저술했다. 이 때문에 책 구성 역시 일본인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조선의 특산에서 다른 철도는 경부선(京釜線), 호남선(湖潭線), 경의선(京義線), 경원선(京元線), 함경선(咸鏡線) 등이다. 주요 노선별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경부선 47개, 호남선 20개, 경의선 40개, 경원선 15개, 함경선 42개로 총 164개 지역의 특산물 318종을 소개했다.

특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농수산물로 약 53%(115종)의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는 공산물 및 광물 순이었다.

이 책은 관광 안내서답게 각 지역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다루고 있다. 특산물의 명칭과 용도, 품질과 생산량, 가격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 특산물 생산처의 연혁과 구성, 자본 상태, 철도 운송량 및 운임비, 생산 방법, 원료 수입처까지 알 수 있어 일제강점기 산업 경제와 지역 특산물의 현재적 활용 방안 수립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특히, 이 책의 백미는 현존하지 않는 특산물과 그 활용 방법, 그리고 시대의 특징 묘사에 있다. 한 예로 1933년 전북 김제는 참새통조림을 특산물로 출하했다.

당시 조선에서 참새의 뇌와 내장은 당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었고 참새고기는 간장과 맛술을 가미한 고급 구

이 요리로 판매되었다. 김제 참새 통조림은 대부분 경성에서 소비되었고 군산과 전주에서도 애용했다.

참새 통조림이 김제에서 특산물로 생산되었던 이유는 김제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이다. 쌀농사가 주된 소득원이었던 김제는 쌀 수확기에 참새로 인한 피해가 컸고 자연스럽게 참새 포획이 장려되어 포획된 참새는 통조림 공장에서 구입해 참새고기로 가공되었다.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김진우 교수는 "이번 완역을 통해 90여년 전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현재 특산물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의 특산 완역본은 내년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만전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식재료 검사 현장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식중독 예방 대면검사 현장방문에는 도교육청 장학관 및 사무관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중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1인 1교를 지정해 해당학교 검사시간에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식재료 검사 △식재료 운송차량 청결 상태 △검사

시 개인위생 상태 등이다. 식재료 검수에 있어서는 식재료 납품시 해당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는지, 영양(교)사 등 2명 이상의 교직원 또는 학부모가 식재료 검수를 실시하는지와 원산지·신선도·수량·온도·상태 확인 등을 점검한다. 또 식재료 운송차량의 청소상태, 온도유지 여부 확인 및 기록지 관리와 급식종사자의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착용, 식재료 배송직원의 위생복 착용 여부 등도 점검 내용에 포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위기기관 학생 담임교사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위기기관 학생 담임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전주 N타워 컨벤션에서 위기기관 학생 담임교사와 희망교원 1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한다. 연수 대상자는 접수 선점했으며 200명 이상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수는 전북대병원의 위기기관 진단과 중재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구를 활용해 위기기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방법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전북대병원 윤은미·김은선 언어재활사가 참여하며, 한수라 교사(전주이중초)의 위기 기관 학생 지도 우수사례와 실수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참가자들에게는 '가나다 요

술책' 교구를 배부한다.

지난 3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현재 도내 86개 학교에서 130명이 위기기관 진단을 받았고 73명이 치료와 중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찾아가는 음성언어 치료서비스(더 드림)' 팀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위기기관(난독) 학생의 학교로 직접 언어재활사가 방문해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기타 음성언어발달 교육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 임미성 장학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위기기관과 중재교육에 대한 담임교사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홍성훈 교수 '환경·에너지 경제학' 출간

전북대학교 홍성훈 교수(상대 경제학부)가 다양한 경제적 분석 방법으로 환경 문제를 풀어낸 책인 '환경·에너지 경제학'(전북대 출판문화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환 환경규제정책, 환경규제의 영향평가, 환경의 가치측정, 경제 성장과 환경, 국제무역과 환경, 기후 변화와 국제협력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환경경제학 교재들은 오염물질의 배출과 그로 인한 환경 피해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환경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에너지와 물질자원을 체결해 생산 요소로

투입하는 것, 즉 후생 증가를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 화두가 되어 있는 기후변화문제에서 보듯이 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의 이용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함께 다루는 것이 문제의 해소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자는 판단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책의 제목을 '환경·에너지 경제학'으로 정하고 환경관련 문제를 외에 에너지자원의 이용, 에너지시장,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분석의 내용에 상당 부분 포함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성인 교양 '한국화교실' 강좌 실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성인 교양 프로그램 '한국화 교실' 하반기 강좌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9시(연간 총 20회) 진행된다.

'한국화 교실'은 이철장 화백과 함께 '지(紙)·필(筆)·묵(墨)' 등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화에 담긴 정신' 등 이론 강좌와 '묘사(描寫)'나 '외사(外史)' 등을 통해 한국화의 체계적인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좌다.

이번 강좌는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석정 이정직'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정직은 전통과 근대의 변화 사이에서 전북 예술문화를 시작했고, 호남 서단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성장했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시·서·화로 둘러싸인 전시실에서 직접 작품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00여 년 전 전북의 대표 선비 화가 이정직과 21세기 전북 지역민의 만남이 기대된다.

한편, 한국화 교실은 박물관이 단순히 문화재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민들과 함께 숨 쉬면서 체험하는 종합적인 문화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화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5일 '수상자의 에세이는 뭐가 다를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발표 특강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감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9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상자의 에세이는 뭐가 다를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는 지난 학기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 2명이 자신만의 에세이 작성 노하우를 발표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에 관련 전문가를 특강자로 기획해 오던 방법에서 탈피해 새롭게 이전 대회 수상자를 특강자로 섭외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생생한 글쓰기 노하우를 들 수 있었다.

첫 번째 특강자였던 지난 학기 대상 수상자, 김수경(유아교육과, 2) 학생은 거짓으로 꾸며낸 스토리가 아닌 진정성 있는 글이 감동을 준다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두 번째 특강자인 년 대상 수상자, 유은선(간호학과, 3) 학생은 자신의 변화를 중심으로 글을 쓸 것, 더불어 글의 제목에 심혈을 기울일 것, 자신만의 글쓰기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동료 학생의 노하우를 듣고, 글쓰기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으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또래 친구들의 다양한 참여방법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특강자로 참여한 두 학생 역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글쓰기 방법을 되돌아보게 됐고, 본인의 방법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은정 교수(유아교육과)는 "재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별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한년의 정향! 백년의미소!

제14회 순창장류축제

2019. 10. 18(금) ~ 20(일) 3일간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10.18(금) 전국 합창 가요쇼

송가인 (미스트롯) 김소유 (미스트롯) 강진 계은숙

10.19(토) 휘성콘서트

휘성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윤형주 (세시봉) 김세환 (세시봉) 김구봉구

축제 HOT 이슈!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재
지상최고의 순창떡볶이 오픈파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

순창의 밤은 낮보다 Shine 하다!

유명DJ와 함께하는 EDM쇼!
종횡무진 '좀비야 놀자'
강천산 단일 야행!

| 주최·주관 |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